

추석선물 가액한도 상향

자연재해로 어려워진 농업인에게
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
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합니다.

공직자, 언론인,
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
허용되는



농축수산 선물

10만원 → 20만원까지 가능

2020년 9월 10일(목) ~ 10월 4일(일)

(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)

우리 농축산물과 함께
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

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

농식품부는 전국
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
현장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.

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

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 설치,
노후화된 수리시설 개보수 및 안전진단 강화

② 수리시설 위기경보체계 개선 및 안정성 강화

저수지 제방에 ICT 누수계측기를 설치하여 위기경보체계 강화,
저수지 물넘이 확장·비상수문 설치로 홍수대응능력 강화

③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

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,
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시스템 재정비



농업재해 극복,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

- 피해 농가 특별지원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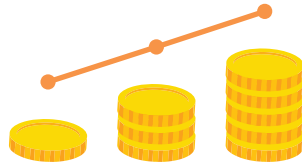
1

재해복구 지원단가 인상

올 여름 재해 피해를 본
농업인들이 지원받는
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높였습니다.

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
현행 실거래가의 **80% 수준에서 100%로 인상**하였습니다.
또한 피해율이 50% 이상인 경우
4인가족 기준 124만 원의 생계비가 지원됩니다.

주요항목별 인상수준



대파대	일반작물 304만원/ha(실거래가의 80%) → 380만원(100%) 과채류 707만원(80%) → 884만원(100%) 사과 1,239만원(43%) → 1,437만원(50%) ※ 그동안 1~2년근 한가지로만 대파대가 지원됐던 인삼은 3~4년근, 5~6년근 항목을 추가해 실거래가의 5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농약대	일반작물 59만원/ha(실거래가의 80%) → 74만원(100%) 채소류 192만원(80%) → 240만원(100%) 과수류 199만원(80%) → 249만원(100%)
시설복구비	지주시설 120만원/10a(70%) → 172만원(100%) 단동 참외하우스 570만원(31%) → 919만원(50%)

2

피해농가 특별 금융지원

재해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
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.

농축산 경영자금	기존 지원자금의 이자 전액 감면(1.5% → 0%), 상환연기(1~2년) 지원 ☑ 별도의 신청 필요없음
재해대책 경영자금	재해 피해농가 신규대출 지원 (농가당 5천만 원 한도) - 고정금리 1.5%, 변동(매월)금리 0.97%, 대출기간 1년 ☑ 지역 농협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 - 호우 피해농가는 9월 17일 ~ 연말 - 태풍 피해농가는 10월 초 ~ 연말
농업경영 회생자금	경영회생을 위한 기존 대출금의 저리 대환 지원 - 고정금리 1%,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☑ 지역 농협,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
긴급생활 안정자금(농협)	특별재난지역 피해조합원 무이자 대출 지원 - 세대당 1천만 원 한도, ~9월 29일까지
피해복구 특별여신(농협)	호우·태풍 피해자 대출 우대금리 적용 - 조합원 최대 2%p ↓, 비조합원 최대 1%p ↓ 이자납입 유예(12개월 이내) 지원 ☑ 지역 농협, 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신청 가능

3

태풍 등 피해 벼 매입 추진

집중호우, 태풍으로 인한
벼 피해 농가를 위해 수매 희망 물량을
매입합니다.

잠정규격 신설	피해 정도에 따라 별도의 피해 벼 매입을 위한 잠정규격을 신설(10월 16일경)
잠정 매입시기	2020년 10월19일 ~ 11월 30일
매입가격	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피해 벼의 제현율, 피해립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 ① 중간 정산금: 매입 직후 우선 지급 ② 차액: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정산

